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샬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 곳 광야는 이제 다소 선선함을 간간히 느낄 수 있는 가을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저희들도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 아래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요르단 소식

현재, 요르단의 분위기는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8월에는 ISIS를 지지하는 테러범들이 테러를 일으켜 희생자들이 생겨나고 무장 세력 5명이 체포되었고, 상반기 9억 달러에 달하던 해외 원조가 급격히 줄어듦으로써 요르단의 공공부채가 증가하고, 경제가 휘청거리는 가운데 실업률이 18.7%로 증가하였으며,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주유비 인상은 사역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르단 대표단 80명이 시리아를 방문하여 경제 협력과 국경 재개를 위해 안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조만간 시리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자타리 난민 캠프 소식

이달 현재 난민 수는 약 7만 9천 4백명이며, 매달 500명 가량의 신생아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물은 3개의 지하수를 뚫어 트럭으로 계속 공급하고 있고, 전기는 야간에 12시간 공급되고 있으며, 식량으로는 매일 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시화의 시작으로 상하수도 시설을 위해 땅파기 공사가 한창이어서 먼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타리 캠프 내 한국 아카데미는 개학을 하여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으며, 가을학기에는 태권도, 영어, 한글을 중심으로 음악, 미술 과목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른 과목들을 위한 교사를 위해 ㄱㄷ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 광주제일ㄱㅎ, 분당선한목자ㄱㅎ 장년부, 청년부, 한소리 뮤직 테라피팀이 단기ㅅㄱ로 와서 난민들을 섬기며 돕고 봉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실질적인 방학은 8월 말까지 3주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가정 소식

아내 싸미야는 방학을 하고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복귀하여, 가을학기부터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위해 진흥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수업을 시작했고, 부부가 함께 아랍어도 튜터링을 시작하였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는 단기 사역자 숙소 한 동(방4개)이 완성되었고, 다른 한 동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장기사역자 숙소 겸 ㅅㄱ센터는 3층 슬라브 작업까지 끝났으며, 2층 벽돌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ㄱㄷ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ㄱㅎ와 가정 위에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날마다 ㄱㄷ합니다.

마아 쌀람...

요르단 자따리 난민 캠프에서 이상만 이미례 선생 올림...

ㄱㄷ 제목:

1. 시리아 난민들에게 ㅂㅇ이 증거되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무슬림을 위한 ㅅㄱㅅ로 세워지도록.

2. 저희 부부와 사역자들의 안전과 건강과 성령충만을 위해서, 비자를 새로 신청을 하고 4개월째 체류 중인데 속히 발급되도록, 아랍어로 소통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3. 한국 아카데미에 필요한 헌신자들(교사들, 태권도 사범)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정식 학교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교재와 시설들이 잘 준비되어지도록.

4. 장단기 사역자 숙소와 ㅅㄱ센터가 완공을 위해서.

5. 미국에 남겨진 두 아이들(다솔, 다해)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도록.